

불자 세상보기



정병조 금강대총장

가끔 너무 잘 사는 것이 아닌가 싶어 민망해 지곤 한다.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우리 사회는 절대 빈곤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60년대까지만 해도 신문 사회면은 연탄가스로 죽는 사람, 복어 알 먹고 죽는 이들의 기사가 흘러 넘쳤다. 가난했던 시절의 겨울은 어찌도 그렇게 음습하고 길었던지...

그러나 요즘의 한국 사회는 풍요가 철철 흘러넘친다. 배고팠던 시절의 아픔을 저 멀리한 채 다이어트와 성인병 때문에 골치를 썩는다.

또 하나의 놀라운 발전은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 격차가 현저하게 줄었다는 점이다. 가히 단군 이래 최대의 호황이라고 할 만하다.

모든 생명은 행복해 질 권리가 있다. 또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산다.

그러나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밖에 없다. 백두산만큼 돈을 벌어야 행복하다는 사람들도 있고 히말라야의 정상만큼 높은 자리에 올라야겠다는 사람도 있다. 혹은 인생의 반력을 구한다던지 도를 이루는 정신적 만족을 추구하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을 물질적 만족에서 찾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정신적 만족이라는 것이 지극히 애매모호한데 비해 물질적인 만족은 분명히 눈앞에 펼쳐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행복이 영원할 수 없다는데 있다. <금강경> 가르침처럼 풀심의 이슬처럼 무상한 것이 세속의 부귀영화이다. 가난해도 불편하고 많이 갖고 있어도 불안하다. 따라서 근심조차도 삶의 일부로 삼고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누구에게나 고통의 그늘은 있기 마련이고 삶이란 그 그림자를 안고 사는 여정이다.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서도 여전히 빈곤과 갈등을 느끼는 까닭은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다. 상대와의 비교우위를 탐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부족할 수밖에 없다. 과거의 한국인은 집 한 칸 갖는 것이 서민들의 꿈이었다. 그 꿈은 이제 더 큰 집, 더 큰 차

풍요속의 빈곤

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 갖고자 하는 욕심은 채울 길이 없다. 언제나 욕망의 갈증 속에서 해매일 따름이다.

따라서 행복의 조건은 자명해진다. 지족(知足)하는 인생, 스스로의 처지에 만족할 줄 아는 지혜가 행복의 첩경이다. 인간은 땀 없이도 못살지만, 땀만으로도 살 수 없는 존재이다. 그래서 물질적 탐닉을 죄악시하기보다는 물질과 정신의 조화를 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풍요는 행복의 조건이기는 하다. 그러나 풍요자체가 행복은 아닌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불교는 '버림의 미학'이다. 소유를 위한 욕구보다는 무소유의 진실을, 다름의 윤회라기보다는 지는 것을 배우는 가르침이다. 불교에서는 이 이치를 공(空)으로 설명한다. 공은 비었다는 의미이다. 동시에 많은 것을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뜻이다. 비워야 채울 수 있고, 버려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공을 허무적멸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의 참 뜻은 그 허무마저도 극복하려는데 있다. 꽃이 아름답다고 해서 그 현상에 집착하지 않는다. 동시에 꽃이 떨어진다곤 하는 허무에 집착해서도 안 된다. 즉 공의 종착역은 중도인 것

이다. 우리는 여태까지 선진국의 기준을 경제적 지표만으로 설명하여 왔다. 그러나 잘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인간다운 삶이야말로 선진국의 으뜸가치라고 생각한다.

사람에게 인격이 있듯이 나라에도 국격(國格)이 있다. 우리나라의 품격을 유지시켜온 가치 기반은 불교였다. 인과응보적 윤리관을 통해 국민정신을 계도하여 온 것은 고대 한국불교의 큰 장점이었다. 보이는 세계와 그 밑바닥을 형성하는 가치로운 세계를 응시토록 한 힘도 불교였다. 가진 자에게는 무상의 도리를 일깨웠다. 가난한 이들에게는 그 응어리진 한의 정서를 풀어주었다. 즉 불교는 민족의 정신지반을 이루면서 관용이라는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여 왔던 것이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삶의 질(質)이 가장 떨어지는 곳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세계경제 10위권에 드는 나라로서는 다소 참피한 통계일 수도 있다. 이제 우리는 경제 발전만이 목표가 아닌 좀 더 내면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랄뿐이다.

社說

탈핵운동에 힘 모으자

3월 11일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1년 되는 날이다. 1주기를 앞두고 일본 정부는 사고현장을 매스컴에 공개했다. 참참했다. 쓰나미에 떠밀려온 배는 원전에 그대로 있었다. 물난리를 겪으며 한바탕 난리가 났던 원전 부근은 1년 전 모습 그대로이다. 앞으로도 그 배와 쓰레기들은 40년을 넘게 더 그곳에 있어야 한다. 원전 사고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는 사람이 살 수 없다. 동식물들까지도.

합천 평화의집에는 원폭피해자들이 산다. 그들은 영문도 모른 채 내려진 형벌을 평생 안고 힘든 날을 보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원전 사고가 난다면 우리도 그들과 같은 고통을 겪을지 모른다. 원전과 핵폭탄은 그것이 담긴 용기만 다를 뿐 같기 때문에.

불교는 자비의 종교이다. 오계의 불살생(不殺生)계가 말해주듯 생명존중의 종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생명체의 존재가 위협되는 원전은 분명 반대해야 할 물건이다. 물론 모든 것이 상대적이듯 문명의 이기에도 양반이 존재한다. 하지만 원전은 다르다.

원전은 일단 가동되면 '끌 수 없는 불'이다. 인간의 삼독(三毒)은 타오르는 불길과 같아서 지멸(止滅)하지 못하면 스스로를 태워버리고 만다. 원전 이 그렇다.

우리 불자들은 그동안 수행을 통해 번뇌의 불길을 끄는 연습을 해왔다. 부처님의 성도 역시 이러한 과정과 다르지 않다. 지구촌 생명을 위협하는 '끌 수 없는 불'에도 불교계의 담론이 모아지고 실천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황룡사는 관광자원 이전에 사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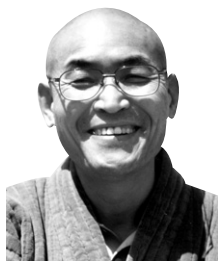
우리 민족문화 가운데 가장 찬란했던 시기로 손꼽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신라시대이다. 신라에는 삼보가 있었다. 황룡사 대종과 황룡사 9층 목탑, 장유존상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황룡사 대종은 몽고군이 바다에 빠뜨렸다고 전해져 현재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 황룡사탑은 당시에 존재하던 가장 큰 목탑이었다. 추정되는 높이는 80.18m이다.

경주시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최근 학술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2006년부터 진행된 황룡사 관련 기초연구성과를 공개하고 향후 추진계획과 정비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2027년까지 3300억원이 투입돼 9층 목탑과 장유존상 등 구체적인 황룡사 복원계획이 소개됐다.

2035년까지 진행되는 '역사·문화환경 정비' 단계에서는 인근 역사·문화환경 정비가 마무리된다고 한다. 이 시기 황룡사 인근에는 명상센터, 불교미술공예관 등이 들어서고, 쇼핑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조성될 계획이다. 복원이 끝나면 관람객들은 황룡사 9층 목탑에 올라 80m 높이에서 경주시내를 둘러보게 된다고 한다. 황룡사탑이 '경주타워'가 되는 것이다. 경주시 등의 복원계획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복원이란 유실되거나 손상된 과거의 것을 똑같이 재현해서 만드는 의미이다. 재현할 수 없다면, 기능을 더한다면 그것은 복원이 아니다. 불교계는 황룡사 복원이 가시화되면 종교적 경건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살피자.

사부대중 갈럼



송암스님 안성도포인사주지

며칠 전, '나가수'와 '나꿈수'의 인기가 천정부지라는 기사를 봤다. 그 생각을 떠올리면서 모처럼만에 세종로를 거닐었다. 책을 사러 나갔다가 여유를 부려봤던 것이다. 인기 높은 이 둘은 같은가, 다른가? 이 둘 중에 나는 무엇을 취해야 하는가? 남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로 생각해 보고 싶었다. 우리사회가 삶에 진지하거나 건전하지 못하고 자못 풍자적으로 가는 데는 각계의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못해서라고 한다. 정치지도자들, 경제계의 인사들..., 예외가 없다. 물론 우리불교계도 역할과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이다.

마치 광속도의 빠르기 변화하는 것 같은 현대사회에서 우리불교의 현실적 존립 기반은 취약하다. 그렇지만 변화의 패일수록 구성원들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원칙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다.

먹고 사는 일에서부터 불사를 이루는 일

까지, 철저히 불교는 불교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여기서 원칙이란? 바로, 신도들의 '보시와 공양'이 우리불교의 현실적인 존립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고, 사찰경제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보시와 공양'은 불교의 핵심적 가치이고 목숨과도 같은 불자들의 신앙생활이다. 참선이나 염불이나 간경이나 그 어떤 수행보다 못하지 않는 실천적인 증오행(證悟行)이고 무아의 성스런 불행(佛行)이다.

오로지 이 힘으로 불교는 존재해야 하고, 이 정체성을 면면히 유지해 나가야 하며, 인류사회에 자리매김해야 한다. 결코, 절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무거나 닦지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 비법이나 탈법, 무법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어떤 경우에도 적당히 해석하여 아전인수해서는 안 된다.

작금, 손쉽게 할 수 있는 메추리 차니 물이니 등을 다수의 절에서 특산품처럼 팔고 있다. 절살림에 한 푼이라도 보태기 위함이다. 그러나 상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되레, 절에서 아껴 쓰고 아껴먹고 절약하여 이웃에게 나누고 가난한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검소한 생활을 통해 사회로 되돌려 주면 절은 부의 분배자가 된다. 세간

이 못하고 자본주의가 못하는 일을 일삼적으로 할 수 있다. 자신들만 잘 먹고 잘산다면 어찌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전통적인 집단의 정통한 가풍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저 신승귀족일 뿐이다. 이래하하 함에도 언제 누구로부터 돈 되는 일이라든 말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을 정도의 상행위가 절에서 버젓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다. 분명, 잘못 끼워진 단추의 불쌍사나운 모양이다.

이제 절 안의 가게를 절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절 밖의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손대서는 안 된다.

옛날 선비나 군자들도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것은 아무리 자신의 삶이 힘들어도 손대지 않았다고 한다. 출격장부들인 출가자가 선비나 군자보다 뛰어난 것 못할지언정 나란하지도 못해서야 되겠는가. 절에서 상행위를 하는 것은 오늘날 대그룹의 행진과도 같은 일일 것이다.

절도 마냥 이대로 가다간 세간의 풍자거리,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나꿈수'의 인기를 들은 사람이라면 두렵지 않은가? 이런 불교집안은 방치한 채 밖에 있는 사람들과만 줄곧 나무라고 야단치는 사람들도 있다.

절이 바르면 사회는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개인에게도 염치가 있고 체통이 있으며 위엄이 있다. 하물며 유서 깊은 수행집단은 더욱 그러해야 할 것이다. 비로소 해야 할 일, 해서는 안 될 일이 여기서 구분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먹고 사느냐?"고 "오로지 신도들의 '보시와 공양'으로만 먹고 살아야 한다." 그게 불교의 가르침이고 수행이고 신앙이고 원칙이다.

'보시와 공양'의 부처님 말씀 속에는 경제, 삼학이 원만구족하다. 무엇보다 그 분께서 그렇게 사셨으니가? 이 대원칙에서 불교가 가야할 길을 찾아야 한다. 절에서 상행위를 하는 시간에, 관리들을 만나러 다니는 시간에 신도들에게 '보시와 공양'을 가르쳐야 하고, 그 공덕을 당당하게 설편해야 한다. 비록 시간이 걸리고 어렵더라도 허리를 졸라매고 원칙을 지키려는 굳센 각오로 설법해야 한다. 불교에는 사찰경영의 방법이나 포교의 효율적인 방법 등은 따로 없다. 오로지 원칙에 충실하면 된다. 부처님을 따라서 말이다. 비로소 '보시와 공양'은 불교를 되살리고, 나라의 국민성이 되며, 인류공존의 무문대로(無門大路)가 될 것이다.

오로지 '보시·공양'으로만 살자

2012학년도 제 21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출강 및 통신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 되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21년 법사양성 연륜과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자격을 여법히 갖추고 포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12학년도 제21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불교법사 자격과 기회 만족을 성취하여 보십시오.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자격 범위중이 주어집니다.
불교학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교육 합니다.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법사품수 후 사찰·포교원 등로서 행정성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과정: 법사과정, 대법사과정, 불학연구원과정, 불교석학과정
모집확반: 출강반, 통신반
입학자격: 불심이 돈독한 분,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교육수로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교육기간: 법사과정 = 1년(교과목 및 불교의식), 대법사과정 = 2년(교과목 및 법음·법패), 불학연구원과정 = 5년(교과목 및 참구수행), 불교석학과정 = 2년(교과목 및 참구수행)
교육장소: 서울 본 대학, 부산교육원, 제주교육원
원서 교부 및 접수: 2012년 3월 15일까지(현재 접수중)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부산교육원 (☎ 051-466-1959) · 제주교육원 (☎ 064-751-1959)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치동 110-39번지 (한신빌딩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읽어 낼 수 있는 비법(秘法)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3) 영가천도는 왜 필요 해주어야만 하는가?
4) 대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6) 조상대 천축, 연축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수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정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해천법사
책자 안내: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4) 팔괘의 상정에 대한 설명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9)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